

KITCHEN · 주방

요즘 가장 많이 선택하는 주방 인테리어 7가지

요즘 주방, 이렇게 바꾼다

매일 세 끼가 오가고, 가족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공간. **주방**은 이제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니라 집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대전·세종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주방의 얼굴 일곱 가지를 모았습니다.

주방이 집의 중심이 된 이유

예전의 주방은 벽을 보고 서서 요리하는, 집의 가장 안쪽에 숨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과 주방의 경계를 허무는 흐름이 자리 잡으면서, 주방은 가족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열린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요리하는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손님이 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구조가 인기를 끄는 이유입니다.

무아인테리어가 만나는 **대전 아파트 인테리어** 상담에서도, 전체 공사보다 주방 하나만 바꾸고 싶다는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방은 적은 범위를 손봐도 집 전체의 인상을 크게 바꾸는, 투자 대비 체감이 큰 공간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선택하는 주방 인테리어 7가지

아래 일곱 가지는 최근 시공 현장에서 특히 자주 선택되는 흐름입니다. 모두를 한 번에 담기보다, 우리 집 구조와 생활 습관에 맞는 두세 가지를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 **대면형 주방** — 벽을 보던 싱크를 거실 쪽으로 돌려, 요리하며 가족과 마주 보는 구조. 개방감이 크고 아이를 지켜보기 좋아 요즘 가장 선호되는 형태입니다.
- **ㄷ자형 주방** — 세 방향으로 상·하부장을 돌려 수납과 조리 동선을 압축하는 배치. 어느 정도 폭이 나오는 주방에서 효율이 좋습니다.
- **아일랜드 주방** — 가운데 독립 작업대를 두어 보조 조리대·간이 식탁·수납을 겸하는 구성. 주방이 넓을수록 진가를 발휘합니다.
- **무손잡이(핸들리스) 도어** — 손잡이를 없애고 밀거나 홈으로 여는 방식. 군더더기 없는 매끈한 면이 요즘 감성의 핵심입니다.
- **상부장 대체·오픈 선반** — 답답한 상부장을 줄이고 오픈 선반이나 낮은 수납으로 대체해 시야를 틔우고 카페 같은 분위기를 냅니다.
- **냉장고장(키큰장)** — 냉장고를 장 안으로 들여 벽면을 하나의 면으로 정리. 툭 튀어나온 냉장고가 사라져 훨씬 깔끔합니다.
- **톤온톤 컬러** — 상·하부장, 벽, 상판을 비슷한 색조로 맞춰 차분하면서도 넓어 보이게 하는 마감입니다.



일곱 가지 중에서도 대면형과 무손잡이, 톤온톤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아일랜드는 통로 폭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동선을 막을 수 있어, 넓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행을 따라 전부 담기보다 우리 집 구조에 맞는 조합을 고르는 편이 오래 만족스럽습니다.

상판과 도어, 무엇으로 고를까

주방의 인상을 좌우하는 두 축은 **상판**과 **도어**입니다. 상판은 매일 물과 열, 칼이 닿는 자리라 관리와 내구성이 핵심입니다. 흔히 칸스톤·엔지니어드 스톤이 무난하게 쓰이는데, 스크래치와 열에 비교적 강하고 관리가 쉬운 편입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질감을 원하면 세라믹이나 천연 대리석을 쓰기도 하지만, 가격대가 올라가고 대리석은 오염에 약한 편이라 생활 습관을 함께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도어는 PET·하이글로시 같은 매끈한 마감이 때가 덜 타고 관리가 쉬우며, 무광 도장·필름은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질감을 냅니다. 무손잡이 디자인과 톤온톤을 살리려면 도어 색과 상판, 벽 타일의 톤을 미리 함께 맞춰 보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밝은 색은 넓어 보이고, 짙은 색은 무게감을 주되 손자국이 눈에 띄기 쉽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무아 시공 사례 · 우림필유 12단지

동선을 살리는 배치의 기술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동선**입니다. 냉장고에서 개수대, 조리대, 화구로 이어지는 이른바 '작업 삼각형'이 짧고 서로 겹치지 않을수록 요리가 편해집니다. 아무리 예쁜 주방도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몸을 크게 돌려야 한다면 매일이 피곤해집니다.

대면형이나 아일랜드를 넣을 때는 작업대와 맞은편 장 사이 통로를 최소 90cm 이상, 두 사람이 함께 쓰려면 100~120cm 정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콘센트 위치, 후드 배기, 수전과 배관을 옮기는 범위에 따라 공사 난이도와 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배치는 철거 전 초반에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콘센트와 조명도 배치 단계에서 함께 정해 두면 좋습니다. 조리대 위 콘센트는 넉넉히 두고, 상부장 아래에 간접등을 더하면 어두워지기 쉬운 조리면이 한결 밝아집니다. **대전 아파트 인테리어** 상담에서 흔한 아쉬움 중 하나가 완공 뒤에야 콘센트 위치나 밥솥·전자레인지 자리를 후회하는 경우라, 자주 쓰는 가전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무아 시공 사례 · 전민동

주방 리모델링, 대략 비용은

주방은 손보는 범위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큼니다. 도어와 손잡이만 바꾸는 부분 시공부터, 배관·전기·타일까지 손대는 구조 변경 시공까지 폭이 넓습니다. 아래 표는 대략의 범위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 값이며, 실제 **대전 주방 리모델링** 현장에서도 자재 등급과 이동 범위에 따라 이 안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방 리모델링 범위별 예상 비용대 (범위·추정)

범위 구분	주요 내용	예상 비용대(추정)
부분 시공	기존 몸통 유지 · 도어·손잡이·상판 일부 교체	약 150만~400만원
표준 교체	싱크대 전체 교체 + 상판 + 후드·수전	약 400만~800만원
구조 변경	대면·아일랜드 · 벽 철거·배관 이동·타일·전기	약 800만~1,500만원 이상

참고 · 위 금액은 지역·평형·자재 등급·현장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현장 실측 견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의 수치는 범위를 가늠하기 위한 추정치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 주세요.

대전 아파트 주방, 현장에서 보면

대전의 아파트는 준공 시기에 따라 주방 구조가 제각각입니다. 둔산·유성 일대의 구축은 주방이 벽 쪽으로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 답답한 벽을 헐고 대면형으로 여는 수요가 특히 높습니다. 다만 벽 안으로 배관이나 세대 공용 설비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 철거 전 현장 실측으로 이동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종의 신축은 기본 구조가 비교적 넓어 아일랜드나 냉장고장 같은 마감 위주로도 충분히 분위기가 살아나는 편입니다.

“주방은 넓히는 것보다, 매일의 동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꿀 때 만족이 오래갑니다.”

우리 집 주방에 어떤 트렌드가 어울릴지는 결국 지금의 구조와 배관 위치, 생활 습관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아인테리어는 **대전 주방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분들께 현장 실측과 상담을 통해 가능한 범위와 대략의 예산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막연하던 그림을 눈에 보이는 계획으로 옮기는 첫걸음을, 편하게 함께 시작해 보세요.



무아 시공 사례 · 엑스포 5단지

MU:A

INTERIOR

당신의 공간에,
무아를 담겠습니다.

공간을 비우고, 삶을 채우다

무료 상담 · 현장 실측 문의

@muadesign2025 · www.ttasum.com

정확한 견적은 현장 실측 후 안내드립니다.

☎ 010-9447-7622